

반전운동 모니터보고서 <반전평화연대>

제 4호 (2011. 3. 4) <http://antiwar.textcube.com>



발행: 반전평화연대(준)

발행일: 2011년 3월 4일

::순서

여는 글 ... 2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 3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 6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 8

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 13

::여는 글

2월 28일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는 한미 군사 동맹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미 당국의 군사적 대응은 남북 관계를 악화시켰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두 정부는 해를 거듭할수록 군사훈련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이자 서해를 맞대고 있는 중국까지 자극하고 하며 또다시 무력충돌의 불씨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이번 <반전평화연대>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며 한미 군사 동맹의 위험성을 알리는 글을 실었습니다.

또한, 올해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전쟁이 돼 버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을 되짚어 보는 글도 담겨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재파병을 강행한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파병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올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쉬노’ 부대에 대한 무장저항세력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군이 미군과 나토군을 도와 점령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않은 점령을 돕는 국가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황을 다룬 글은 우리가 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종식과 파병된 한국군 철수를 요구해야 하는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글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또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 처리했습니다. 최근 밝혀진 바로는 당시 반전평화 단체들이 제기해 온 파병 약속이 원전 수출의 조건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리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피랍 선박 구출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끔찍한 비극이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패권 정책이 소말리아 아덴만 사태를 낳았다는 내용의 글도 이번호 <반전평화연대>에 실려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글_ 수진 (경계를넘어)



올해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2011년 10월 7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카불에 미사일을 쏘아 붓고 새로운 친미 정권을 세웠지만, 그로부터 10년 째 아프가니스탄 민중들은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점령 아래 전쟁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점령군의 공격으로, 점령군과 저항군의 교전 중에 또는 저항세력의 테러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지겹도록 전해지고 점령군과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 반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든 소식은 전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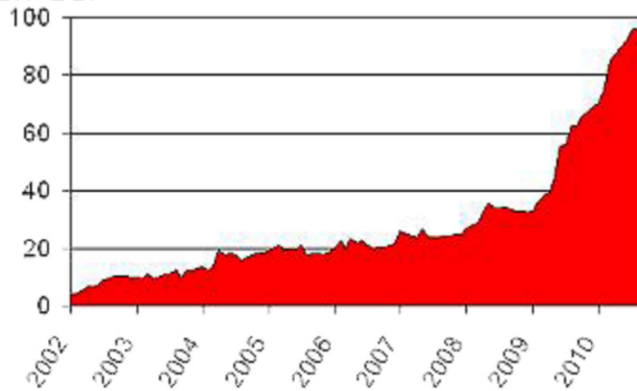
지난 해 연말,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군사전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동맹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즉, 오바마 행정부가 단행한 대규모 증파와 공습 확대 전략이 알카에다를 소탕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안정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010년 상반기에 미국이 3만 명의 병력을 증파한 후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는 나토와 그의 동맹국 병력을 합쳐 약 15만 명의 병력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저항세력의 활동이 활발한 남부 지역에 미 해병대 병력을 집중적으로 파병해 전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미군은 저항세력의 활동 근거지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명목으로 민간 가옥들을 파괴하기도 했는데, 칸다하르의 코스로우(Khosrow) 지역에서는 마을 6곳이 완전히 쓸려나갔다. 이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서 벌어진 공습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자제요청을 할 정도로 작년 한 해 그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1월부터 11월까지 5,465회의 공습이 벌어졌는데, 이는 2009년 전체 공습 횟수에 비해 30% 가량 증가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은 확실한 진전의 또 다른 요인으로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암살부대의 활발한 활동을 꼽았다. 미국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터>는 한 미군 지휘관의 말을 인용해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24시간마다 저항세력 중간간부 3~5명과 24명의 병사들을 살해하거나 생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의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작자들의 생각으로는 대규모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 아프가니스탄 구석구석을 조져냈으니, 그래서 더 많은 과격이슬람분자들이 목숨을 잃었으니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진전”이나 “성공”과는 거리가 먼 끊임없는 폭격의 굉음과 폭발의 잔해에 뒤덮인 잔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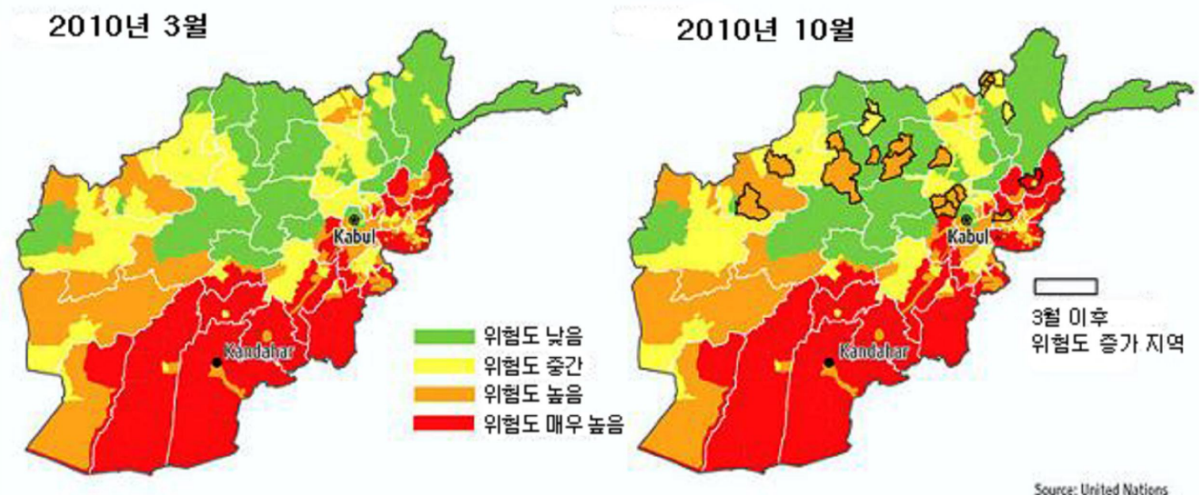
자화자찬 일색의 군사전략평가 발표되고 나서 곧이어 국제적십자사는 이례적으로 아프가니

연도별 아프간 주둔 미 병력 증감 추이
(단위: 천명)



스탄 내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적십자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호품을 운송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소련 점령 하에서 아프가니스탄 내 활동을 시작한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장 세력의 확대와 저항공격의 급증으로 인도주의 활동가들조차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유엔의 기밀 안보지도 역시 지난 해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성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첨부 지도 참조) 지난 해 3월과 10월에 아프가니스탄 전 지역을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 지도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북부지역의 위험수위가 높아진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상반기 내내 대대적인 저항세력 소탕 작전이 펼쳐졌던 남부지역은 여전히 최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혀 변화가 없다.

아프가니스탄 지역별 위험도 (UN)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숫자가 증가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UN이 작성한 민간인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망자수가 약 6천명으로 2009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했다. 또한 AFP 뉴스 통신사는 2010년 한 해 동안 정부 보안군과 저항세력으로 분류된 이들을 포함한 아프가니스탄인 사망자의 숫자가 무려 1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특히 칸다하르와 헬만드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점령군의 군사작전이 집중되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그 어느 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영국의 <채널4>가 탐사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칸다하르에 위치한 미르와이즈(Mirwais) 병원에서 전쟁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2009년에 총 1,15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10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수가 3,056명으로 2.6배나 증가했다. 헬만드 주의 라쉬카르 가(Lashkar Gah)에 있는 응급병원에서는 2010년 10월 한 달 동안 158명이 치료를 받아 2009년 같은 달보다 77%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아프가니스탄 전역의 군병원 관계자들도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군인보다 민간인 환자의 숫자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았다고 증언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자료에는 전쟁과 관련한 부상을 입은 아동의 수가 전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올 한 해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는 군사전략평가 발표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은 알카에다가 3천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숨지게 한 9.11 테러를 계획한 곳이고, 아프간-파키스탄 국경지역을 근거지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지 부시가 10년 전에 지겹도록 읊었던 것과 싱크로율 100%다. 단지 테러 사건을 저지른 자들이 숨어 있었다는 이유로 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테러와 관계가 없는 수십만 명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느 공식에 대입해보아도 해괴한 논리이다. 그럼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미국 대통령이라는 양반들은 10년 채 되풀이하고 있다. 칸다하르 젊은이의 90% 이상이 9.11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조사 결과는 9.11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시키려는 미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9.11을 일으켰다는 알카에다라는 조직이 아프가니스탄에 아무리 많아도 고작 50~100명뿐이라는 미중앙정보국 국장의 고백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선을 파키스탄으로까지 확대한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 열 한 번째 해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2014년에 완전히 철군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의지가 없다. 11월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나토회담을 가진 이후 파키스탄을 방문한 당시 미 중동특사 고 리처드 홀브룩은 “2014년 말에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치안유지의 책임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환 전략이 실행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4년 이후에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홀브룩은 “우리는 전환전략을 갖고 있다. 출구전략은 갖고 있지 않다.”면서 철군이 불가함을 한 번 더 못 박았다. 오바마나 다른 군 관계자들이 올해 7월에 철군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결말이 없는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전쟁을 그만 두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하루 빨리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점령에 맞선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다. 우리가 튀니지와 이집트 민중들과 손잡았듯이 아프가니스탄 민중들과 함께 외쳐야 한다. 점령을 중단하라! 모든 점령군은 떠나라!

한반도 전쟁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 저지하자!

::글_ 2005 파병단식동지회



2011년 새해가 밝았지만 작년 내내 한반도 전반을 흔들었던 전쟁에 대한 위기감이 여전히 드리워져 있는 상황이다. 작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 여름부터 10여 차례 지속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등으로 한반도 주변 동북아 정세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천안함 진상을 둘러싼 국제적 공방과 한국정부의 반복

책동 및 일체의 교류협력 중단, 사상 유례 없이 강화된 군사협력을 축으로 한 한미공조 속에서 2010년 한반도는 60년 전 일어난 전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언제든지 연평도 사태와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상황은 단순히 천안함, 연평도와 같은 사건들에서 갑자기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현 시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는 중동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의 군사적 야욕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즉, 이라크, 아프간에서의 지속된 실패와 함께 동북아시아에서 자신의 군사패권이 약화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미국은 떠오르는 강대국 중국을 겨냥해 해당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강화시키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계속해서 투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이 북한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역량을 결집시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국의 군사세계전략 재편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에 기지들을 밀집시키고 유사시 미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 주일미군, 한국군을 신속기동군의 형태로 분쟁지역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배치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은 대북, 대중군사계획의 일환으로 동북아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대한 협조를 종용하면서 미국본토를 방어한다는 명분 아래 전 세계에서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맞추어 벌어지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한층 가시적이고, 호전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 있다. 지난 7월 25~28일 '불굴의 의지' 한미연합 해상, 공중훈련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해군 7함대 핵심전력이 투입되는 초유의 군사협력으로 이뤄졌다. 동해에서 한미 육, 해, 공, 해병 8천여 명과 20여 척의 함정, 잠수함, F22 랩터기를 비롯한 2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에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과 맞먹는다는 미 항모전단의 전력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해상자위대 장교들이 참관하는 등 일본의 군사력도 추가되어 명실상부한 한미일 연합훈련의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이 운영전문가그룹(OEG) 가입을 선포하기 직전 10월 중순에 진행한 한국주도 첫 부산 PSI 훈련에서도 미국은 물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과 함정탐재 헬기들이 동원되었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는 2011년에도 한층 거세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1월 10일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방한하여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일 국방장관은 이 회담에서 군사비밀보호협정이라고도 불리는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위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기대감과 한, 미, 일 간 더욱 원활한 군사정보 교환을 약속했다. 회담 한 달 전에는 간 나오토 일본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일본인 보호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겉으로는 물자지원 등 방위교류 차원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핑계로 한일간 실질적 안보협력 및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개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향후 자위대의 위상 변화와 일본의 재무장화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발행된 방위백서에서 위협세력을 러시아에서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놓은 일본의 모습은 이러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일간 군사협력 및 일본의 재무장화의 배후에는 미국의 구상과 지원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은 ‘한미 합참의장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초월해 군사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며 ‘한미일 3국 공동 연합군사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멀린은 이어 일본을 방문하여 기타자와 방위상과 만나 한미연합군사훈련에 일본이 참가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11일 한국이 해방 이후 일본과 사상 첫 군사협정 체결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가졌다고 논평하고 이 회담이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에 큰 영향을 미칠 “미국이 강력히 원하는 조치”라고 환영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14일에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운을 띄우면서도 김관진 국방장관과 만나 한미 해군이 참여하는 한반도 해상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남한 해상 전역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 위협 억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올해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와 범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우려된다.

게이츠 방한 사흘 전 11일에는 5일부터 오키나와 근해에서 해상자위대 함정 및 PC3초계기와 훈련을 펼친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부산에 입항, 한국 해군과 사흘간의 협력일정을 진행하였다. 게이츠의 발언과 관련해 해군은 올해 미군이 참여하는 연합대잠수함 훈련을 작년보다 2배 이상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 밝혔다. 연합대잠훈련은 키리졸브 및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등 대규모 훈련과 비정기적인 소규모 훈련까지 합하면 연간 10여 차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상 연합대잠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전단과 원자력추진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이 참가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 “같은 지역에 세 개의 항공모함이 배치된다는 것은 전쟁준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낸 것이 결코 빈 말이 아니다.

일본의 군사력 역할 증대, 한일 간 긴밀한 군사협력,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동북아에서 새로운 냉전의 기운을 몰아오고 있다. 북미 간에 다시 대화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전쟁연습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일의 군사협력이 나날이 진일보하는 현실에서 선부른 낙관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자들이 벌인 전쟁을 수없이 봐왔다. 또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떤 일들을 벌여왔는지 끊임없이 목도해왔다. 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학술 각 분야가 이해를 같이 하는 군산복합체가 존재하는 나라 미국의 본질을 직시한다면, 지금 이 곳에서 미국이 획책하는 전쟁책동을 단호히 저지해야만 한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군산복합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여전히 건재한 네오콘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염원과 전적으로 배치되는 전쟁위기를 막아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어느 것보다 절실한 지금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평화는 바람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3일만 참아주면 북한을 폭격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을 몰아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한 데 모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만들어가는 행동에 반전평화연대가 앞장서자.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의 문제점

::글_ 수열(사회진보연대)



2011년 1월 11일, 한국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었다. 아크부대는 대테러팀, 특수전팀, 고공팀, 지원부대 130여 명으로 구성되었고, 4-6개월 주기로 교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당한 절차조차 무시한 날치기 파병

정부 여당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했다. 한나라당은 국방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고, 개석 157명 중 14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파병은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았다. 줄곧 파병 계획을 부인하던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병 계획을 밝힌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민의를 수렴하기는커녕 해당 상임위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벌인 날치기였다.

원전 수주와 무관하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기로 하면서 포괄적 군사교류협정을 맺었다. 때문에 원전 수출이 결정되면서부터 파병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정부와 국방부는 줄곧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작년에 원전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대파병) 거론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해 사실상 원전 수주에 대한 대가성 파병이며, 대통령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안전한 비분쟁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전투 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의 ‘국가별 안전정보’는, UAE가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에게 항상 테러의 목표로 지적되고 있어 신변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은 UAE를 높은 수준의 테러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UAE는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해 있는데, 가장 가까운 지점의 거리는 불과 30여 km에 지나지 않는다. UAE와 이란은 1960년대 말부터 페르시아만에 있는 아부무사섬과 툰브섬 등 3개 섬을 놓고 영유권을 다투고 있다. 페르시아만의 입구 쪽에 위치한 이 섬들을 장악하면 주변에 매장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가 이 섬 주위를 통

과하기 때문에 이 지역 원유 수송로의 길목을 장악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매일 미국과 서유럽, 일본 등지로 가는 원유 1700만 배럴 등,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란은 1971년에 2개의 튜브섬을 무력으로 점령했고, 1992년에는 아부무사섬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그 후 이란은 아부무사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 하거나, 인근에서 전쟁모의 연습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높였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외교 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2007년 8월호에서 아부무사섬을 '세계 5대 자원 분쟁지역'으로 소개했고, 당시 국내 언론도 이 내용을 많이 보도한 바 있다. UAE가 비분쟁 지역이라는 정부와 국방부의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군사협력과 국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파병이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이 5,000명 가량인 UAE의 특수전부대를 1만 명으로 배가하고 부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긴밀한 훈련 협력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다른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한국이 파병까지 해가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더구나 UAE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즉 무력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UAE는 최근 이란의 행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다를 것이 없다며 이란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한편, 이란 금융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이란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UAE의 강경한 자세는 군사력 증강 움직임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11월 10일 발표한 <2005-2009년 국제 전투기 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UAE가 상기 기간에 수입한 전투기는 총 108대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전부대 파병 외에도 한국은 UAE와 다양한 군사적 협력을 약속했다. 탄약과 차량 등 방산물자 2,006만 달러 수출 계약 체결을 포함해 다양한 방산협력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그 한 가운데로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의 결정판이라 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

국방부는 UAE의 요청 때문이라며 어느 정도의 협력을 약속했는지, 정부 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파병이 2012년까지라고 하지만,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의 생명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국익'이라는 이유로, 혹은 상대국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책을 명확하게 알리고 보고해야 할 정부의 의무는 손쉽게 무시되고 있다.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 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지난 해 11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UAE 방문 이후 UAE에서 파병을 포함해 40개 질문사항을 전달했고,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 그렇다면 국가 간 군사협력의 내용 보고와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된다.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군사협력 문서를 국방위원들이 열람 또는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도 아닌데

UAE에서 비공개를 요구한 것이다.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이번 파병이 원전 수주의 대가가 아니라 양국 간 군사협력에 의한 것이라면, 한국 군대가 다른 나라에 파병되는 것이 바로 그 군사협력에 의한 것인데 그와 관련된 협력 문서가 외교부에서 조약 넘버를 받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국익

한국 군대의 해외 파병의 근거는 언제나 ‘국익’이었다. 그러나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된 그동안의 파병은 파병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국익’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그때도, 지금도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이번 UAE 원전 수주가 400억 달러 규모이고, 단일 수주 중 최고가 사업이라고 선전하지만 원전수주 계약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입찰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거나, 고정환율 계약으로 환율 변동 시의 손해와 60년간의 수명 동안 고장이나 사고 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해 핵심 부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나 일본의 도시바에 하청을 줄 수밖에 없어 전체 공사액에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선전하는 만큼의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국익’ 논리에 숨겨진 침략적 한미 동맹

반미 세력의 확산을 차단하고 중동에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란을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중대한 과제다. 더불어 원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10%를, 천연가스는 16%를 보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관리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UAE에 대한 협력과 지원은 이란에 대한 고립/압박 전략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전체 인구가 462만 명에 불과한 UAE에 미국을 비롯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영국과 호주 등 10개국 군대 3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것도 UAE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준다.

한국의 이번 파병은 결국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욱 더 깊숙이, 더욱 더 직접적으로 결합하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 해 9월 한국 정부 시행한 이란 제재 조치가 미국의 이란 압박 전략에 동참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가 2009년 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한 일명 ‘PKO 신속파견법’을 제정하고, 2010년 7월에는 3천여 명 규모의 파병전담부대를 만든 것은 한미 동맹이 더 광범위한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파병 근거의 무한 확장

발전소 수출과 같은 민간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려는 파병은 사실 법적 근거가 없다. 한국 헌법 제5조 2항은 국군의 임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국한해 규정하고 있다. 경제적 목적으로 여기 저기 옮겨 다닌다면 그것은 타인의 피를 돈으로 바꾸는, 돈을 벌기 위해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는 용병부대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UAE 파병은 향후에 한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에서 그 근거를 크

게 확장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파병은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안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발전소와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 UAE의 군사력 증강을 도와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다. 전 세계의 화약고와 같은 중동 정세에 점점 더 깊숙이 발을 들여 놓는 것이 결코 평화로 향하는 길이 아님을, 중동과 더불어 전세계를, 그리고 우리 민중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려 나가야 한다. 더불어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군대가 된다는 것은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위협에 놓이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AE 파병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파병 반대 운동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말리아 아덴만의 진실



지난해 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을 날치기 통과처리하면서 소말리아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 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청해부대는 2009년 3월 13일 파병됐다. 청해부대는 구축함(4500t급) 1척,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수전요원(UDT) 30여 명을 포함해 300명으로 구성돼 있다.

파병 당시 이명박 정부는 아덴만의 해적들로부터 한국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청해부대를 파병한다고 밝혔다. 최근 1월 21일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해적에 억류된 한국인 선원을 구출한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내세워 파병의 정당성뿐 아니라 파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소말리아 아덴만의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 파병과 군사적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해적을 소탕하겠다고 파병 경쟁을 벌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은 2008년 6월에 각국이 함대를 보내야 한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서방 강대국들이 함대를 파견한 뒤인 2009년에 이 지역 해적 사건은 전 해보다 감절로 늘었다.

오히려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를 받은 이슬람법정연맹이 소말리아를 장악한 2006년에는 해적 행위가 거의 없었다. 이슬람법정연맹이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미국은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를 침략하도록 부추겼고 다시 혼란이 시작됐다. 미국의 개입은 극심한 빈곤을 낳았다. 소말리아의 한 해적은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소말리아에 안정적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해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 민중들은 끔찍한 기아와 빈곤에 시달려 왔고, 절망적 상황에서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납치’와 ‘약탈’을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게 된 것이다.

지정학적 요충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해적 사건의 30~40퍼센트는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해안에서 일어났다. 그때 유엔은 아무 개입을 하지 않았고, 주변국들이 알아서 협조해 대처했다. 그렇다면 아덴만에 대해서는 유엔과 서방 강대국들이 왜 적극적으로 대처했을까?

유엔과 서방 강대국들이 신속하게 개입하기 시작한 소말리아 아덴만은 말라카 해협과 인도네시아 해안과 달리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아덴만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지나가는 곳이고, 아라비아 반도의 석유가 인도양으로 나오는 바닷길목이다. 소말리아는 미국이 알 카에다 본거지라 꼽은 예멘과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나라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경제·군사적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게 소말리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

인 것이다.

그래서 2006년에 미국에 비협조적인 이슬람범정연맹(UIC)이 소말리아 민중의 지지 속에 내전을 끝내고 불안정과 빈곤을 해결하려 나섰을 때, 미국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았다.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은 에티오피아 군대가 소말리아를 침략해 수도 모가디슈를 점령했다. 미군은 폭격 등으로 이를 지원했다. 미국이 세운 괴뢰 과도 정부와 각 세력 사이 내전이 다시 시작됐다. 난민 수백만 명을 낳은 지금의 내전과 기아 상태는 순전히 미국의 개입 때문인 것이다.

소말리아 인들이 생계형 해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도 강대국들의 책임이다. 1990년대부터 소말리아의 혼란을 틈타 각국 어선들이 소말리아 영해에서 불법 어업을 하고, 각종 폐기물을 버려 왔다. 이 때문에 소말리아의 어업이 붕괴됐다. 지금 함대를 파견한 어느 나라도 이런 행위를 막으려 한 적이 없다.

도시에서도 바다에서도 생계를 해결할 방법을 빼앗긴 어민들은 바다로 나가 불법 어선들에게 '세금'을 받았다. 미국과 친미 강대국들은 이런 사람들을 '해적'이라 부르며 (불법 어선이 포함된) 자국 선박을 보호하겠다고 함대를 파견한 것이다.

따라서 파병과 군사적 해결책으로는 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한국군 파병에 드는 돈이 한해에만 2백80억 원이고 미국이 지난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쏟아 부은 돈만 7백억 달러다. 이 돈들은 이 지역의 가난과 기아 해결을 위해 쓰여야 한다. 또한, 소말리아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강대국들이 패권 정책이 중단돼야 한다. 소말리아 민중은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내전을 끝내고 자신들의 삶을 건설해 나간 경험이 있다. 따라서 지금 소말리아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민중들 스스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자유다.